

남북고대사 연구의 인식차이 비교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 엮은 김정배교수

남북의 오랜 갈라섬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 절름발이 행보의 흔적을 남겼다. 학술연구 분야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이념의 선 바깥에 있는 북한학계의 자료개방에 대한 목마름은 그만큼 갈증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최근 김정배교수(고려대 사학과)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발표됐던 고대사관계 연구논문을 엮은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 I II」(대륙연구소)은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있다.

북한 학술자료의 부분적 개방과 함께 사학계의 연구업적이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즈음 이 책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 대한 북한학계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학문적 갈증을 해소시킬 단비와도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배교수가 작년에 북한 사학계의 분야별 연구동향을 소개한 「북한이 보는 우리역사」(을유문화사)에 이어 두번째로 엮은 이 책은 남한쪽 학자들의 논평과 분석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남북의 시각차이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줄곧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연구동향을 지켜봤기 때문에 60년대부터 북한과 공산권의 학술자료를 모아왔습니다. 물론 외국 동료학자들의 도움이 컸지요. 당시엔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부분적으로 내 논문에서 인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도 학문적 여과를 거친 평가와 함께 북한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겨레의 역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대사의 총론적 성격의 논문과 서지·금석학 관계 연구성과, 고고·인류학분야, 각 쟁점별 연구논문 등 다방면에 걸쳐 주요논문 20편을 뽑고, 다시 국내 관련학자 17명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밝힌 논평을 모았다.

북한의 고대사연구는 시기적으로 1950~60년대에 집중돼 있다. 해방후 都有浩, 韓興洙가 고고학분야에서 역사성 짙은 사관논쟁을 벌임으로써 고대사·연구발전의 씨를 뿌린 후 이 시기에 고고학분야에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북한논문의 게재자인 「문화유산」, 「고고민속」, 「력사과학」 등에서 쟁점적 논지들이 흥미롭게 개진된 것도 주로 이 시기라는 것이 김교수의 지적이다.

“이 시기이후 북한은 중국 문화혁명에 영향 받아 10년동안 잡지가 발간되지 않는 등 학문

의 침체를 보입니다. 70년대 말부터 다시 나온 잡지의 논문들은 그 질이나 양에 있어 현저히 낙후돼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별다른 격차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고대사연구가 상당히 발전했으리란 예측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지요.”

오늘날 북한의 고고학에서 엿보이는 주체사관과 국수주의의 지나친 돌출성을 냉정히 바라볼 때 오히려 5, 60년대의 융통성 있는 논문들이 더욱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김교수는 이 책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김석형의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력사과학」, 1963년1호)를 꼽는다. 이 논문은 그동안 일본학계에서 ‘신라정벌’ ‘임나7국의 평정’ 등 “일본국가가 조선반도 남부를 가락(임나)에 설치된 일본부를 중심으로 경영”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민족이 일본열도 내에 삼한·삼국의 분국을 설치했다는 논지를 문헌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고대한일관계사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 고대사연구는 내용면에서 주로 노동자 즉 피지배계급의 생활상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대외관계를 중요시하여 역사상 해외진출을 민족적 기상과 연결시키려 한다든가, 고구려·부여·발해 연구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현저하다는 것.

“북한은 우리처럼 전체고대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그들 실정에 걸맞는 분야에 편중된 연구경향을 보입니다.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쪽에 관한 연구처럼 오늘의 북한과의 의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문에 큰 비중을 두지요. 상대적으로 백제·신라·특히 통일신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논문을 뽑는 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관련학자들조차 말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읽어보지 못한 논문들도 적잖이 수록돼 있어 학계에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가.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고대의 역사를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다만 이 책을 엮은이로서 김정배교수는 책임기에 냉정함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단다.

“접근하기 어려웠던 만큼 기대감이 크리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줄곧 북한자료를 접



해온 사람이라면 북한의 연구견해가 일관되고 단일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선 중국 연변학자들의 논문에 뛰어난 것들이 많죠. 요즘엔 동유럽 등 공산권 사학자들도 북한보다 우리의 학문경향에 더 관심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우리학계가 그들보다 객관성·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죠.”

북한쪽의 견해에 무조건 경도되거나 ‘반공’의 시각에서 무조건 배격하는 전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벗어나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상대쪽에 빈약한 자료와 문헌교환을 통해 남북한 사학연구를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전초작업의 하나로 이 책을 끝마친 시점에서 또다시 김교수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북한 고대사연구에 관한 세번째 책을 묶어내는 일이다.

고대사를 전공하면서 고고학·인류학에까지 학문적 관심의 폭을 넓혀온 김정배교수는 영어·일어를 비롯해서 독일어와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통달한 언어능력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고대학회장으로 있으면서 현재 고려대 서창캠퍼스 부총장직을 맡기도 한 김교수는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 「한국고대사론의 신조류」 등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다음은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에 실린 북한학자들이 논문제목이다.

- 제 I 권 (총론편) ▲原始사회사 연구에 관한 覺書(韓興洙)
- ▲고조선 국가 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리지린)
- ▲고조선에 관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 (정찬영)
- ▶진국사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리상호)
- ▶삼국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하여(림건상)
- ▲3국의 계급 제관계(김석형)
-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박시형)
- [서지·금석편]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고조선과 가락국 건국신화의 불교관계자료에 대한 고찰(최복홍)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김영경)
-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개 년호에 대하여(손영중)
- 제 II 권 (역사편) ▲신라 건국 전설에 대한 고찰(강석준)
- ▶고구려에서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편성과정에 대하여(림종상)
-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전주농)
- ▶중국 료서지방에 있었던 백제의 군에 대하여(김세익)
-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김석형)
- [고고·인류편]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인류화석과 조선사람 기원문제의 해명(김용남)
-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석광준)
- ▶백제의 돌칸흙무덤에 관한 편년(궁성희)
-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채희국)
- ▶3국 시기의 마구(박진옥)